

# 백남준아트센터 NJP 커미션 《숨결 노래》 전시 연계 프로그램 에글레 부드비티테 퍼포먼스에 참여하세요!

암스테르담에서 활동하는 리투아니아 작가 에글레 부드비티테 (Eglė Budvytė)가 한국에서 처음 선보이는 퍼포먼스 <실려서 가고, 뒤에서 끌려가는 (Some Were Carried, Some - Dragged Behind)>, 그리고 <송 싱 소일(Song Sing Soil)> 을 백남준아트센터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에글레 부드비티테는 음악, 시, 영상, 안무 등 다양한 매체를 다루며 퍼포먼스와 시각예술을 섬세하게 교차시키는 작업을 선보입니다. 부드비티테의 퍼포먼스는 인간의 신체가 지닌 원초적인 몸짓이나 목소리를 사용하여 사회적인 공간과 통념의 견고함을 전복시킬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하며, 노래하기(karaoke), 잡아끌기(dragging), 달리기(running) 등 직관적이며 강력한 신체 사용의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작가는 현재 빌뉴스와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파리 프락(2024), 로마 국립 21세기 미술관(2024), 뉴욕 커널 프로젝트(2023), 베니스 비엔날레(2022), 리가 국제 현대미술 비엔날레(2020) 등에 참여하였습니다.

## <실려서 가고, 뒤에서 끌려가는>

일 정: 2024. 11. 8(금) - 9(토), 오전 11시

장 소: 백남준아트센터 야외

소요시간: 약 35분

참여대상: 일반 관람객

참여신청: 백남준아트센터 홈페이지

<https://njp.ggcf.kr/events/331>



워크숍과 퍼포먼스가 결합된 형식으로 7명의 퍼포머가 2, 3명씩 그룹을 만들어 서로를 바닥으로부터 들어 올리거나, 잡아 끌고, 안아서 업는 등 상대의 몸을 천천히 이동시키는 여러 가지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퍼포머들의 신체는 땅을 딛고 선 수직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지면과 가까워지며, 상대방에게 부드러운 보살핌을 받는 모습을 보이거나, 반대로 억지로 끌고 가는 모습 등을 취하게 됩니다. '끌기(dragging)'라는 단순한 행위에서 사람 간의 신뢰와 배려의 제스처, 권력과 폭력에 대한 은유, 무의식과 해방의 감각 등 다양한 차원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 <송 싱 소일>

일 정: 2024. 11. 8.-16. 매주 금/토, 오후 2시

장 소: 백남준아트센터 2층 전시장

소요시간: 약 50분

참여대상: 일반 관람객

참여신청: 백남준아트센터 홈페이지

<https://njp.ggcf.kr/events/332>

에글레 부드비티테와 마리아 올샤우트카이트가 공동 작업한 <송 싱 소일>은 노래(Song) 노래하다(Sing) 흙(Soil)의 의미를 지닌 세 단어를 시처럼 조합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흙과 퇴비, 땅을 생명이 호흡하고 순환하는 장소이자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며 공연자의 아름다운 안무와 특수하게 제작된 트램펄린과 의상, 사색적인 음악, 다양한 음역대를 지닌 목소리의 노래가 주된 요소로써 맞물리며 일종의 유기체의 섬을 전시장 속에 만들어냅니다.